

동서대, 해외취업 2020 K-Move 스쿨 선정

4년제 대학 전국 최다인 6개 과정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 지난해 K-Move 스쿨 캠프 참가자들의 모습

지난 3월 3일, 동서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 스쿨'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다인 6개 과정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우수 과정은 ▲미국 패션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20명), ▲미국 산업 그래픽디자인 양성과정(20명), ▲미국 무역물류 프랜차이즈 양성과정(20명), ▲미국 IT 엔지니어 양성과정(15명), ▲일본 IT 엔지니어 양성과정(15명)이고, 1개 일반 과정은 올해 신규로 포함된 ▲베트남 경영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정(15명)이다.

심 청년고용정책 중 하나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외취업으로까지 연계하는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이다.

580만 원(단기과정) 또는 800만 원(장기과정)이 지원되며 구직자 본인 부담금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글로벌기업, 해외 진출 기업, 해외 유망직종 기업 등의 취업을 연계하고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 일자리 연계, 해당국 부족 직군, 기술·기능 및 전문 직종으로 자격 취득 또는 해당국 맞춤형 훈련과정 이수 후 취업을 연계하는 것에 지원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K-Move 스쿨을 통해 해외취업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동서대는 해외취업을 원하는 동서대 학생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학년부터 해외취업 로드맵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해외에 취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서대는 지난 2016년, 청년 해외 진출 분야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과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해외 취업 연수과정 및 운영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동서대는 2011년부터 K-Move 스쿨을 통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해 해외에 보내 글로벌 무대에서 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취업 기업으로는 Forever21(미국), The Korea Times(미국), H-Mart(미국), FNS(미국), 두산중공업(베트남), 포스코(베트남), 화승(베트남), 창신 INC(베트남), 라쿠루(일본) 등이 있다.

동서대는 상반기에 미국 패션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미국 산업 그래픽디자인 양성과정, 미국 무역물류 프랜차이즈 양성과정, 미국 IT 엔지니어 양성과정, 일본 IT 엔지니어 양성과정, 베트남 경영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정의 총 6개 과정에서 105명을 모집한다.

대학 일자리 센터(학생 취업지원처)에서 개강하는 4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K-Move 스쿨에 참여할 동서대 학생들을 모집하며, K-Move 스쿨에 선발된 학생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8개월간) 국내외에서 직무, 어학, 필수, 소양교육을 받고 미국, 일본, 베트남으로 1년간 파견 후 현지 기업 취업 혹은 국내에 있는 관련 기업에 취업한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동서대 장제국 총장 입학사

사랑하는 2020학번 새내기 여러분에게

지난 3월 2일, 코로나19로 취소된 입학식에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이 입학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남겼다.

▶ 장제국 총장 입학사

사랑하는 2020학번 새내기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은 여러분인데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학식이 취소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세 번째, 우리 대학은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일하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지식은 머리로 배우야 한다.

두 번째, 우리 대학은 탁월한 글로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1,00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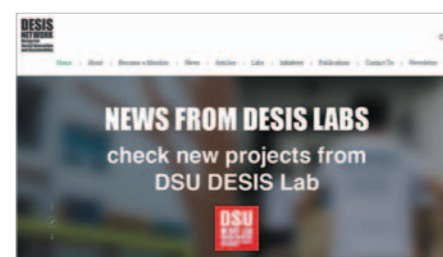
명의 재학생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에 현지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대학이다.

셋 번째, 우리 대학은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일하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지식은 머리로 배우야 한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DSU-DESIS lab>, 세계와 소통하다

DESIS Network 뉴스 메인 기사 장식해



▶ DESIS Network 사이트 메인

또 다른 예술마를 구축 프로젝트로 DSU-DESIS lab의 활동을 진행했다.

<DSU-DESIS lab>은 세계와 '창의적 디자인'으로 세상에 헌신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협업을 통한 디자인 제안과 실천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설립됐다.

DESIS(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Network는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전 세계 유수의 디자인대학들이 함께 교류 및 소통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말한다.

<DSU-DESIS lab>은 2019년 하반기의 첫 콘텐트로서 디자인대학, 안병진 교수와 학생들이 지난 9년간 진행해온 'DMZ 해마촌 디자인 예술마를 만들기 2018' 프로젝트와 이명희 교수팀의 '감성문화마을 가이드 맵' 프로젝트 등으로 세계와 소통했다.

앞으로도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는 <DSU-DESIS lab>을 기반으로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창업지원의 사회혁신 디자인 활동을 세계와 공유하고 확산해나가고자 한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선출

위기와 격변의 시기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요구돼



▶ 행사에 참여한 장제국 동서대 총장

지난 1월 22일(수) 오전 10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The-K 호텔 에비뉴(별관) 한강홀에서 2020년 상반기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며 제22대 회장으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총회는 ▲개회사 ▲신임·연임 대학 총장 소개 및 인사 ▲2019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 ▲2019년도 업무 및 회계개사 결과 보고 ▲2020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韓國私立大學總長協議會)는 1982년에 설립됐으며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학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이다.

이전 총회는 ▲개회사 ▲신임·연임 대학 총장 소개 및 인사 ▲2019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 ▲2019년도 업무 및 회계개사 결과 보고 ▲2020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 장제국 동서대 총장 모습

이 더욱 발전하여 국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상호 협력해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동서대학교가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전국 사립대학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립대학 교육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동서대학교가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전국 사립대학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립대학 교육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동서대학교가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전국 사립대학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립대학 교육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선정

3개의 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 동서대학교 학생들

동서대학교가 '2020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논문, 특허 등 대학의 연구 성과가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집약적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령

- 편집국장 - 김태향 (광고홍보학과·4)
• 정기자 - 조은빛 (방송영상학과·2), 한연익 (국제통상학과·2)

### 동서대학교, '부산학생 꿈터' 로 선정

진로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 인정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진로 프로그램

부산시 4년제 대학 가운데 동서대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우수 진로체험활동 '부산학생 꿈터'로 지정되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부산학생 꿈터'는 중고교생 2000여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진로체험공간인 Industry 4.0 Lab.'을 기반으로 이공계 진로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았다.

꿈꾸는 아이들의 길라잡이라는 뜻을 가진 '부산학생 꿈터'는 부산지역 내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우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대국민 플랫폼인 만큼 학생들에게 적절성, 유의미성, 교육의 중립성과 체험활동 공간 시설의 비유해성, 쾌적성, 안전성이 2년간 유지되어 이공계 진로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았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안에서는 직접 찾아 가서 진행되는 이공계 진로지도 특강을 비롯하여 ▲3D 메이커 공학 ▲로봇 공학 ▲드론 공학 ▲소스프로그램 제작 ▲음향 인터페이스 제작 ▲수소전기자동차 제작 등 다양한 창의공학 체험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

들이 지속적으로 이공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Girls' Engineering Weeks ▲청소년 애니메이션 캠프 ▲살롱드 아인슈타인 캠프 ▲3D 메이커 챌린지 캠프 등 심화 프로그램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른 부류에서는 드론 조종 및 항공촬영 체험과 세계 유명 건축물 모형 만들기, 사물 인터넷 제품 만들기 체험, 일일 군인 되어 보기, 스포츠 재할 마사지 및 테이빙요법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그 외 프로그램 말고도, 전략산업기반 실무 융합형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위해 맞춤형 진로설계 멘토링, 특성화 전공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로체험을 사용한 사람들은 '우수한 진로 체험자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과 부산 교육청의 지속적인 홍보 덕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밝히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지용성 동서대 WISET 사업단장은 "'부산학생 꿈터' 인증을 통해 앞으로도 이공계 진로지도, 창의공학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실질적인 창의공학융합인재교육(STEAM)으로 과학, 공학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부산 학생꿈터 측에서도 "부산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덕분에 것 같기도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라는 적극적 지지를 보였다.

부산학생 꿈터 인증 마크를 사용하려면 우수 진로 체험 철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2년간 10회 이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받으며 사후 만족도 5점 중 평균 4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참여하여 받는 혜택으로는, 부산학생 꿈터 인증 마크 사용 권한 부여와 프로그램 홍보, 책자 제작 배포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동서대는 미래형 대학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펼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학생 꿈터에 이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취업 경험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 중이다.

조은빛 기자  
dmsalc111@gmail.com

### 방송영상학과,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서 최우수

선정된 미디어 분야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받아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진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가 작년 광고홍보학과에 이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서 최우수학과로 선정되었다.

이번 방송영상학과를 최우수학과로 선정된 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대신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중 선정된 미디어 분야 학과 중에서도,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사례집에도 실렸다. 이번 평가를 위해 참여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전반의 제도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연구와 지원을 주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협의회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을 평가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대학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위해 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원의 전문·일반직 무연급 평가를 위해 1105개 기업체 부서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인재를 길러내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평가에 이어 이번 평가도 포스코·두산 중공업·LG디스플레이·CJ헬로·플류얼·농심·스프링스 등 22개 기업 임직원과 대학 평가 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했다. 평가 기준은 주로 대학 평가 전문가가 산업계 기반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성과' 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했으며, 평가 반영비율은 교육과정 설계 30%, 교육과정 운영 50%, 교육과정 성과 20%로 반영하여 실시했다. 이에 대학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는 자료집으로 만들어 각 대학에 배포했으며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홈페이지에도 탑재했다. 대교협에서 선정하여 28일에 발표한 대학교와 학과는 경남대 나노신소재공학과,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미디어 전공,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등 25개 대학 30개 학과가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학과로 선정됐다. 주요 신소재(금속·세라믹), 미디어, 식품 등 3개 분야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62개 대학평가 전체 18개 분야를 합산하면 '최우수'를 가장 많이 획득했다. 현재 9개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장재국 동서대 총장은 "동서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산업계의 기대

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시행하며, 대학이 교육과정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교협 관계자는 "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업계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산업 트렌드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서대학교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최우수상을 이어, 무궁한 발전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기업들이 대학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반영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교협은 교육부 지원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협조로 2008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도입했다.

조은빛 기자  
dmsalc111@gmail.com

### 동서대학교 학생들, '코로나19' 극복에 힘 부어해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극복에 앞장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식품영양학과 동아리 '푸드어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대학교들이 대교 개강을 연기하고, 본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또한 대학 안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나, 기숙사 행정에도 비상사태가 이어지며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학교 측의 명확한 대처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불안감을 커지고 있는 중이다. 부산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대학교 등 많은 학교에서 개강을 연기하는 대신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도록 조정했다. 사람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계에서도 사람들의 기부나 무상 제공 등 지원 대책이 속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서대학교의 기부 향례가 펼쳐지고 있다.

동서대학교 학생들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손 소독제를 다량으로 만들어 출품 어르신과 중국인 유학생에게 전달했다. 식품

영양학과 동아리 '푸드어스' 학생 50여 명은 2월 15일 전공을 살려 손 소독제 500개를 만들어 학교 인근 홀몸 어르신과 학교 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푸드어스' 동아리는 동서대학교의 동아리 중 하나로, 이번 사태로 인해 손 소독제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반찬 나눔에서 시작됐다 한다. 그뿐만 아니라 푸드어스는 직접 구매한 식재료로 음식을 조리해 홀몸 어르신들 찾아 나눠주고, 어르신에게 말동무도 되어 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동서대학교가 분산한 일은 동아리에 맡겨졌다.

2월 24일에는 동서대 총학생회가 교내 청소·경비·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어머니·아버지들에게 마스크 210개와 커피·간식을 전달했다. 또한 청소도우미 45명, 경비원 22명, 주차관리 3명 등 교내 환경 근로자 70명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다. 덧붙여 3월 2일에는 동서대 총학생회에서 '사랑의 생필품'을 유학생에게 전달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 도모했다. '사랑의 생필품'에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각종 과자, 라면, 음료 등을 담은 80상자들 생필품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였다. 이 밖에도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 학년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코로나19 응원 기부 릴레이를 진행하며 황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기를 불어넣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서대학교 중국인 졸업생 양명 동문도 4월 6일 모교에 마스크 2000장을 후원으로 보내왔다. 양명 동문은 "어려운 시기에 모교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 지금 힘든 상황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응원의 활력을 불어주는 활동을 진행하고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며 힘을 불어주고 있다. 앞으로 더 기부를 추진하여 세상에 대한 따뜻한 힘을 부여하는 우리 대학의 인재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이다.

조은빛 기자  
dmsalc111@gmail.com

### 동서대, 메이커 스페이스 기관으로 선정

동서대를 포함하여 총 64곳 최종적으로 정해져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동서대학교가 중소 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억 6천만 원씩 총 8억 원을 지원받는다.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에는 491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동서대학교를 포함하여 총 64곳이 최종 선정되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은 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현·공유할 수 있는 창작 활동 공간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 입문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서부산권 메이커 문화 확산과 지역 창업 분위기 활성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취지로 본다.

특히 동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가공·도색 분야를 중심으로 4대 핵심 전략인 ▲가공·도색 특화 공정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기반 공유·협업 공간 활성화 ▲감성문화마케팅 관 광상품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민관협력 창업 지원 체계 구축 활성화를 통해 대한 교육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사상·사하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메이커 기반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윤태수 메이커 스페이스 센터장은 "지역의 혁신성장과 제조창업 활성화를 토대가 되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통해, 많은 예비창업자와 일반인,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다운 산학협력단장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을 진행하면서 동반된 TOP 창업 지원의 메카로 구현·공유할 수 있는 창작 활동 공간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 입문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서부산권 메이커 문화 확산과 지역 창업 분위기 활성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취지로 본다.

현재도 동서대학교는 메이커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그동안 기간이 운영되는 7개 일반 랩과 시가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지역 메이커 산업에 이끔다. 하지만 고급 장비와 전기 문턱이 높을 수 있는 공간 부족, 전기 교육 프로그램 마비로 메이커 활동이 실습 과정과 별개로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 최초로 전문 랩 유지에 성공함에 따라 우수 메이커가 성공 창업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활동으로 영역이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보인다.

조은빛 기자  
dmsalc111@gmail.com

### 동서대 신문사 '이.취임식'

새로운 신문사로 전환



▶동서대학교 신문사 이·취임식 축하 장면

1월 28일 동서대학교 신문사(산학협력관 6층)에서 '방송영상학과 이주원' 전 국장이 이임하고 '광고홍보학과 김태환' 국장이 취임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신문사 학생들과 담당 교수님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이임식과 취임식은 임기를 마친 전 국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과 현 국장의 취임 축하를 전담했다.

신문사 학생과 담당 교수님은 이주원 전 국장의 이임에 아쉬움을 표했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송별이 이어졌다. 또한 담당 교수님은 감사패와 꽃다발을 함께 전달하고, 신문사를 잘 소화 해냈던 전 국장에 대한 덕담을 나누며 이임식을 마쳤다. 이에 이주원 전 국장은 신문사에 대한 이별과 아쉬움을 전하며 앞으로 동서대학교 신문사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교수님의 축하와 함께 김태환 국장은 "'안녕'의 뜻대로 아무 말 없이 편안할 수 있는 신문사를 만들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신문을 쓰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취임식을 가졌다. 더불어 편집국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께 감사패를 표하며 신문사의 운영체제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을 함께 말하면서 신문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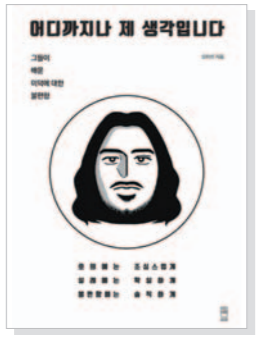
신문사에 힘써준 전 국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현 국장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포부를 알 수 있었던 이·취임식은 앞으로의 신문사의 질 향상에 큰 기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빛 기자  
dmsalc111@gmail.com



책 속의 풍경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 책 제목 : 아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 책 저자 : 오마르
- 출판사 : 레터프레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인간관계, 진로, 연인, 친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신 있게 말하는 '오마르의 삶'이란 유튜브 채널이 있다. 이 채널에서는 '오마르'라는 유튜브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특유의 예리하고 유머 있는 화법으로 풀어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발언한다. 오마르, 그의 본명은 양해민으로 1987년 부산광역시 출생인 가수이자 작가이다. 토크 유튜브버도 활동, 라디오 출연, 강연, 글쓰기를 하며 오마르 작가는 자신의 직업이 이야기꾼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가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세상 모든 불편함에 대해 글을 쓴 책이 바로 '아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이다. 그 부제로는 '그들이 배운 미래에 대한 불편함'으로 그가 생각하는 모든 불편함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깊은 생각들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다. 오마르 작가의 다

양한 주제들 중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여 소개해본다.

<부럽다는 동경의 말>, 부럽다는 말을 쉽게 내뱉는 건 어쩌면 무례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뤄 놓은 성취에 대해 부럽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 말 속에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험난한 과정은 감수할 마음도 없이 결과에만 치중한 부러움이 아닐까.

<보여 주려 하는 것과 보이는 것>, 프로와 프로인 척하는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아마추어와 호흡을 맞출 때까지 아마추어가 되어주고 프로인 척하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들끼리 자신의 차이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프로의 딱딱한 아마추어를 배려하는 여유와 관용, 그것이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아는 사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와 아는 사이고 누구와 친한 사이인지를 설명하면 그것만큼 정확한 설명이 없다.

<언제 버린 짐작>,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들이 상대방에게 한 달 뒤에 도착한다면 우리는 한 자 한 자에 온 마음을 눌러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오마르 작가는 말한다. 글 속에 담는 마음에 중량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글에 가벼운 마음밖에 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는 더 빨라지는 세상이 고압전선이라고 말한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던져 버린 짐작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취미로 남겨진 꿈>, 작가는 "꼭 꿈꾸던 무엇인가를 직업으로 삼아야 현명한 걸까. 꿈꾸던 일을 임의로 삼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독자들에게 되물

는다. 직업으로 선택받지 못하고 취미로 남겨진 꿈들이 너무 흠뻑날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평소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즐겨올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의 탈출구가 있다면 팬텀은 삶이다. 피 땀을 쏟아야 할 이유가 없고 무조건 잘해야 할 필요도 없는 본인만의 것이니 말이다. 꿈을 이뤄 가든, 꿈을 취미로 남겨 두든 그건 스스로 선택의 문제이고 그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반드시 욕을 먹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이야말로 많은 비난들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아직 시원하게 욕을 얻어먹지 못했다는 건 본인의 도전과 목표가 다른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평소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 인간관계에서 오가는 언행들로 인해 힘들었다면 오마르 작가의 책을 가볍게 권유해본다. 책의 제목이 그러하듯이 작가 자신의 생길 뿐인 글들을 읽으며 스스로 뜨겁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읽었다. 다양하게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있으면서 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인터넷 네트워크 속에서 스스로 한 프레임에 얽매어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대해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도 독자 본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감정에 따라 읽을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생각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를 책으로 접하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소통인 듯하다.

이달의 영화 - 작은아씨들



- 영화 제목 : 작은아씨들
- 영화 감독 : 그레타기웁

영화 '작은아씨들'은 책 '작은아씨들'을 토대로 조금 각색하여 만들어진 영화이다. 책 '작은아씨들' 속 주인공 가족은 자유·박애·평등을 기초로 한 이상적인 가족의 상징의 모습을 띄고 있다고 평가받으며 출간되자마자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책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답게, 영화 속에서도 등장인물들은 자유·박애·평등을 기초로 하며 당대 억압된 여러 가지 사회구조와 인종차이에 대해 대항한다. 작은아씨들은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에서 살아가는 서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온화한 첫째 메그, 활발하고 거침없는 둘째 조, 내성적인 셋째 베스, 집무심 많고 감쪽한 넷째 에이미 네 자매의 성장과정을 다루고 있다.

네 자매는 남북전쟁에 참전 중인 아버지의 안전을 기원하며 어머니 수잔과 함께 열심히 살아간다. 여유롭지 못한 환경이지만 어머니 수잔의 제안과 배움을 통해 더 어려운 주변 이웃을 도우며 살아간다. 그러던 도중, 이웃 로렌스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의 손자 로리가 네 자매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다.

로리는 장난기 많은 데부호 로렌스가의 소년이다. 로리는 네 자매들 중 유독 둘째 조와 더욱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네 자매와 로리가 친분을 계속해서 쌓아갈 때쯤, 첫째 메그는 로리의 가정교사 브룩과 눈이 맞아 결혼하게 된다. 메그의 결혼식이 치러지고 난 뒤, 둘째 조는 네 자매의 대고모와 함께 유럽에 가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고모는 대뜸 둘째 조가 아닌 넷째 에이미를 데리고 간다고 한다. 이렇게 화가가 꿈이었던 넷째 에이미는 대고모와 함께 유럽에 가서 수준 높은 미술 공부를 한다. 유럽에 가지 못하게 된 둘째 조는 이후 로리에 게 청혼을 받는다. 그러나 조는 로리의 청혼을 거절한다. 본인이, 서로가 각자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로리는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조는 불안정한 미래가 눈에 보인다고 거절하고 뉴욕을 떠난다.

뉴욕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번 돈으로 생활하며 작가의 꿈을 놓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글을 쓴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어머니 수잔에게서 셋째 베스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간다.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던 셋째 베스는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

에이미와 함께 유럽에 갔던 대고모는 여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항상 말한다. 부자 프레드와 결혼을 생각하지도,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로리를 우연히 유럽에서 만나게 된다. 로리는 에이미에게 본인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에이미는 예전에 로리가 전에 둘째 조에게 청혼한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거절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프레드와 결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로리의 청혼을 거절한 에이미는 이후 프레드에게 청혼을 받는다. 기다려왔던 청혼이지만 에이미는 고심 끝에 거절한다. 이미 마음속에 로리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에이미는 로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로리와 함께 본가로 돌아간다. 둘째 조는 셋째 베스 때문에 본가로 온 이후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본가에 남아 있었다. 그러면서 로리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예전에 로리와 함께 해서 즐거웠던 순간들, 로리가 힘이 되었던 순간들, 마지막으로 로리가 청혼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소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알아낸다.

그러나 이미 로리는 넷째 에이미와 약혼을 한 상황이었다. 조는 로리에 대해 썼던 편지를 누가 못 보게 버린다. 그리고 계속해서 글을 쓴다.

이렇게 영화의 막은 내려간다. 영화 작은아씨들은 1860년대 시대의 여성에 관련된 인식들과 현실을 보여주며, 여성 캐릭터를 새롭게 조명하고 모던하게 재해석하였다.

더불어 가족의 따뜻함, 갈등, 깨달음, 좌절 등 여러 가지 감정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또한 어느 영화와는 다른 진행 방식을 보여주었다. 보통 일반적인 영화는 시간순으로 장면을 나열하여 보여주지만, '작은아씨들'은 영화 속에서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는 '플래시백'을 이용하였다. 영화 '작은아씨들'은 제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음악상, 의상상 총 6개 주요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당당한 영광의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제7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여우주연상 및 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되었다.

5. 10 유권자 날, 한 표의 가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형태 및 결과,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한 역대 최고 투표율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으로,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였다. 또한 자가 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없었으며, 도착 후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나 구별되는 장소에서 대기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가 격리자 투표를 관리하는 투표사무원은 전신 보호복을 비롯해 안면 보호구, 마스크, 의류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 투표 결과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였다. 지역구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무소속 5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미래한국당이 19석(33.8%) >더불어민주당이 17석(33.3%) >정의당이 5석(9.6%) >국민당이 3석(6.7%) >열린민주당이 3석(5.42%)을 차지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에 과반 1당은 물론 1987년 개헌 이후 전체 의석의 5분의 3(180석)을 넘어서는 첫 단일 정당이 됐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1석보다 2석 많은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 투표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고치와 최저치 투표를 모두 달성하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으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26.06%였다. 그러나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하였다. 총 4399만 4247명의 선거인 중 1174만 2677명이 참여한 것이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6.2%로 1992년 이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58.0%)에 비하면 무려 투표율이 8.2% 상승한 것이다. 이에 반해 재외국민 투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투표율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표권을 가진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이 참여했다.

# 5-10 유권자의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를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의 주간으로 한다. 유권자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3조)을 지칭한다. 투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점점 늘어나는 투표율이 증명한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5대(1996년) 63.9% >16대(2000년) 57.2% >17대(2004년) 60.6% >18대(2008년) 46.1% >19대(2012년) 54.2% >20대(2016년) 58.0% >21대(2020년) 66.2%이다. 앞으로 선거와 투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 투표율이 더욱 상승하기를 바란다.

# 한 표의 가치, 4660만 원

제21대 국회의원 유권자 수는 4399만 4247명이다. 올해 정부 예산(512조 3000억 원) 기준 21대 국회의원 1명(4년) 동안 다루는 예산 규모는 2040조 2000억 원임을 고려하였을 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사한 한 표의 가치는 4660만 원이다. 이는 서울시민 전체에게 10만 원씩 지급가능한 돈이다. 선거에는 투표함, 기표대,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심사 계수기, 인건비 등을 비롯하여 약 4102억 원이 사용된다. 선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이 사용되는 것이다.

총선 후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면 돈은 더욱 많이 사용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선거에 임 후보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임기를 시작한 후 사망한 경우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한다. 예로 지난 20대 총선 후 재·보궐 선거에 들어간 돈은 122억 원이다. 대한민국 재·내외국민이 행하는 소중한 한 표는 4660만 원 상당의 가치이며 한 표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이라 예상된다.

김민경 기자 rudvmfelxp@gmail.com

축제·공연 소식

- 태안 세계튠립공원**
  - 기간 : ~2020.05.11.
  - 장소 : 코리아플라워파크
  - 주최 : 태안꽃축제추진위원회
- 아침고요수목원 봄나들이 봄꽃축제 2020**
  - 기간 : ~2020.05.24.
  - 장소 : 아침고요수목원
  - 주최 : ㈜아침고요수목원
- 2564부산연등축제 2020**
  - 기간 : ~2020.05.27.
  - 장소 : 송산현광장
  -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해양제주 OCEAN JEJU**
  - 기간 : ~2020.07.05.
  - 장소 : 국립해양박물관
  - 주최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 미스터얼간이**
  - 기간 : ~2020.08.30.
  - 장소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주최 : ㈜조은아트플러스
- 빛의 벵커 '반고흐' 2020**
  - 기간 : ~2020.10.25.
  - 장소 : 빛의 벵커(제주 상산)
  - 주최 : ㈜티모넷
- 2020 토요일**
  - 기간 : ~2020.12.19.
  - 장소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 주최 : 국립부산국악원

# 새내기들을 위한 학교생활 정보

2020년, 새로운 한 해에 어울리는 신입생들이 동서대학교 입구로 다가온다. 첫 대학 생활이란 경험이 주는 두근거림에 즐거울 수 있으나, 곳곳의 낯선 환경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강의가 늦춰져 적응의 시간을 갖기 부족할 수 있어 이런 우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새내기들을 위한 학교생활 정보를 건네주기 위해, 또한 학교의 신실 지역을 소개함과 동시에 동서대학교가 미래형 대학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 # 교내 학교 식당(이하 '학식') 위치



▶경영관(8번 건물) 근처 학교 식당

학교 식당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내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하 '학식'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동서대학교 내에는 총 두 개의 학교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 식당 내 메뉴는 대부분 고정이나 특정 날에만 오픈되는 메뉴가 존재하기도 한다. 메뉴에 대한 정보는 동서대학교 어플인 '동서대학교 스마트 캠퍼스-식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식당은 입구에 식권 결제기가 놓여있다. 자신이 원하는 식당 메뉴를 고른 후 결제를 하면 식권이 배부된다. 먼저 첫 번째, '경영관' 건물 내 학교 식당은 8번 건물인 경영관 입구로부터 왼쪽 셋길에 배치되어 있다. 이때 경영관 입구 맞은편에 계단이 있는데 내려가지 않고 왼쪽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 주의점이 존재한다.



▶글로벌 빌리지(23번 건물)내 학교 식당

두 번째, '글로벌 빌리지' 건물 내 학교 식당은 23번 건물인 글로벌 빌리지 내 4층에 배치되어 있다. 글로벌 빌리지는 동서대학교 내 기숙사이자 또 다른 기숙사인 우진 아파트와 가까이 마주 보고 있어 기숙사생들에게 접근성이 도드라진다. 기숙사생이 이용 가능한 조식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석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학생 식당 중 최대 인원을 수용 가능한 곳이다.

## # 교내 카페 위치



▶국제협력관(1번 건물) 2층의 제페니스 카페

첫 번째, 어문관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국제협력관(1번 건물) 2층에는 제페니스 카페가 있다. 2층으로 갈 때엔 1층의 CU 편의점 왼쪽에 배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제페니스 카페는 일본어에 흥미를 가진 전교생이 재미있게 일본어에 익숙해지고 일본 문화에 친숙해지기 위한 공간 형성 및 행사를 목적으로 지어졌다. 중간,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시 운영한다. 제페니스 카페의 상시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NHK 상영, 잡지 및 신문 비치, 일본의 의류 및 근현대사의 변역을 전시하여 감상하는 문학작품 및 번역시화전, 일본인 유학생과 함께 일본어 및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을 회화를 통해 습득하는 'HELP DESK'가 있다.



▶국제관(7번 건물) 1층의 차이니스 카페

두 번째, 국제관(7번 건물) 1층의 차이니스 카페가 있다. 차이니스 카페는 중국인 교수의 헬프데스크 운영, 월별 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중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중국어 학습 공간과 살아 있는 중국어 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카페의 용도뿐만 아니라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차이니스 카페의 상시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중국 CCTV방영으로 중국어 청취력과 중국의 사회, 문화적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중국 방송 시청, 중국 서적 및 신문 비치, 중국 고사 성어 나들이, 중국인 교수와 함께 하는 중국어 학습공간인 '중국어 Help Desk'가 있다.



▶대강당 엘리베이터 2층의 잉글리시 카페

세 번째, 뉴밀레니엄관과 대강당을 잇는 엘리베이터 2층의 잉글리시 카페가 있다. 잉글리시 카페는 외국인 교원의 헬프데스크와 특별활동을 통해 외국인 교원과 학생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와 실질적인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잉글리시 카페는 중간, 기말고사 기간과 학교 행사 주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된다. 잉글리시 카페에서 운영하는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영어로 단어 맞추기, 영어로 보드게임, 영어를 사용하면서 축구 및 농구 경기 참여, 'Tastes&Textures', 'Scavenger Hunt', 외국인 교원과 함께하는 영어 학습 공간인 '영어 Help Desk'가 있다.



▶글로벌 빌리지(23번 건물) 외부의 Cafe Meal

네 번째로는 글로벌 빌리지(23번 건물) 외부의 글로벌 빌리지 카페가 있다. 정확히는 UIT 건물 1층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있다. 담담 어학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카페의 역할만 하는 이곳은 기숙사 바로 옆에 위치해 기숙사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식사 대응으로 파는 것들이 다양해 급히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장소이다. 음료와 식사대용 음식을 세트로 저렴하게 팔고 있어 가격에 대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본 카페는 인쇄 및 복사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돈을 지불하면 프린트가 가능하다. 카페 카운터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흑역 프린트가 급히 필요하다면 카페를 방문해도 좋을 것이다.



▶민석도서관(21번 건물) 1층의 이미칼 카페

다섯 번째는 민석도서관(21번 건물) 1층에 있는 이미칼 카페이다. 민석도서관 입구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보이는 장소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은 공부를 하면서 커피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공간이다. 카페엔 음료뿐만 아니라 잡지, 책, IT 공간이 있어 공강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준다. 게다가 민석도서관의 입구에 위치하여 시험기간 때 긴 내리막길을 내려가지 않아도 손쉽게 마실 것을 구매할 수 있어 학생들의 편의를 돕는다. 바로 맞은편에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소 큰 규모의 IT 공간이 있어 과제를 하기에 용이하다.



▶스튜던트플라자(24번 건물) 1층의 Herry's cafe

여섯 번째는 스튜던트플라자(24번 건물) 1층의 Herry's cafe이다. 버스 정류장의 바로 앞에 있는 이 카페는 넓은 크기를 자랑해 스터디를 위한 공간으로도 적합하다. 바로 오른쪽에 맘스터치와 식당가가 붙어있어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장소로 손꼽힌다.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음료를 주문하기도 좋고, 스튜던트플라자 3층과 가깝게 자리 잡고 있어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음료를 사러갈 수 있는 등 위치적 이점이 다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한다.



▶GIS 2층 건물 밖에 위치한 Cafe Dream

일곱 번째로는 GIS 2층 건물 밖에 위치한 Cafe Dream이다. 정확히는 스튜던트 플라자를 지나 뉴밀레니엄관을 향하는 도로에 있다. 키오스크가 배치되어있어 급히 음료를 주문해야 하는 테이크아웃 손님들에게 알맞은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어 마시고 가기도 편리하다. 후문과 가까이 있는 만큼 학생들이 자주 찾는데, 기숙사와 가까이 있는 특징 덕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편이다. 방문 시 외국인 유학생들이 스티디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튜던트플라자(24번 건물) 3층의 Plaza Cafe

마지막으로는 스튜던트플라자(24번 건물) 3층에 위치한 Plaza Cafe이다. 스튜던트 플라자 입구로 후문 입구에 위치해있어 가볍게 방문하기 좋다. 또한 앉아서 쉬다 갈 공간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과제를 하기에 적절하다. 메뉴가 다양할뿐더러 교내 카페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언뜻 보면 Plaza Cafe이 다소 좁아 보일 수 있으나, 아늑한 자리들이 곳곳에 있는 만큼 집중해서 과제를 해야 할 때엔 왼쪽에 위치한 4인실 자리를 사용하면 되므로 자리가 협소하여 생기는 실질적 문제는 없다. 경영관, 어문관과 같이 위쪽에 자리잡은 건물들로 향하기 전, 카페에 들러 마실 것을 사러 한다면 Plaza Cafe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 # 교내 마을버스 위치



▶냉정역 5번 출구 앞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첫 번째, 냉정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냉정역 5번 출구' 정류장은 5-1, 5-2 버스 노선에 해당한다. 스튜던트 플라자 근처의 건물에 가야 하는 사람들은 냉정역 5번 출구로 나와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튜던트 플라자 근처의 건물은 뉴밀레니엄관, UIT, 산학협력관이 있다. 민석도서관이나 국제관, 어문관, 경영관, 국제협력관으로 가야 한다면 냉정역 1번 출구에 있는 '냉정역'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냉정역 버스 정류장을 거치는 버스는 5, 5-1, 5-2, 2번이 있다. 버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착 예상시간 15분 이전에는 반드시 서있는 것이 좋다. 어느 정류장이더라도 사람이 붐비므로 버스를 기다리다 지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을 면하고자 한다면 일찍 줄을 서는 것이 중요하다.



▶주례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두 번째에 소개할 정류장은 냉정역이 아닌 주례역에 있다. 주례역 1번 출구에 배치된 '주례 럭키아파트(주례역)'에는 3, 3-1, 2번 버스가 운행된다. 3, 3-1 버스는 글로벌 빌리지로부터 왼쪽, 2번 버스는 글로벌 빌리지로부터 오른쪽으로 가기에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본 정류장은 글로벌 빌리지를 경유하기에 근처 건물로 향한 일이 있다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버스 탑승 시에는 앞에 탑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 안쪽 맨 뒷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좋다. 앞에 서 있다면 뒤에 사람들이 더 타지 못해 뒤쪽은 빈 채로 출발하므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려가 반드시 요구된다.

## # 뉴밀레니엄관의 새로운 시설들



▶뉴밀레니엄관 3층에 위치한 미래형 강의실



▶뉴밀레니엄관 4층에 위치한 회의 공간

2020년, 뉴밀레니엄관의 3층에 새로 만들어진 미래형 강의실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선사하기 위해 기존의 강의실을 개조한 것이다. 자세한 위치는 뉴밀레니엄관 3층 브레인스토밍 공간 왼쪽이다. 시설 기기를 포함해 새롭게 꾸민 강의실을 한 번 방문해보길 바란다. 학생들의 회의 공간이 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뉴밀레니엄관 4층에 새로운 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본래 모습과 다르게 탈바꿈하여 과제나 공모전 등을 위한 회의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위치는 뉴밀레니엄관 4층 교무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 # 마치며

처음 듣는 대학이란 세상은 생각보다 넓어 헤매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는 미숙한 것이 아닌 모든 선배들이 거친 일련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아갔으면 한다. 학교를 알아가는 것 또한 추억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 제시한 곳만이 아닌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서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기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다 보면 분명 따르는 이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동서대학교에 입학한 모든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을 늦게나마 전한다.

자료 출처 :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신협정 수습기자  
hyujik369@gmail.com



■ 동서대학교 20학번 신입생 인터뷰 -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김유정 학생

# 캠퍼스에서 활보하길 기다리며

## 온라인 강의에 대한 신입생의 솔직한 인터뷰

빛깔이 만개한 캠퍼스, 어색하면서도 설렘이 가득한 새로운 친구와 선배의 만남, 고등학교 선생님과 사뭇 다른 교수님의 전공 수업. 기대감을 헛껏 부풀고 대학교 입학한 신입생들의 바람과 달리 코로나 19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 대학교가 대면 강의의 대신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재학 중인 많은 학생은 물론이거나, 학교에 적응하기도 전에 익숙하지 않은 대면 강의를 듣게 된 신입생들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러 걱정과 근심을 헤아리기 위해 누구보다 오래 기다려왔을 1학년 신입생들을 대표하여 김유정 학생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솔직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매우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1학년 이기에, 1학년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돌이켜 보았을 때 자꾸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1학년으로 입학하여 입학식도 못 간 것도 아쉽고 또한 체육대회,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국가가 재난에 위기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개강 이후로 동서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A. 아니요, 아직 입학한 이래로 캠퍼스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시라도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캠퍼스에 하루빨리 방문해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동서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여 생활하고 싶습니다.

Q.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속 학과와 이름 등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애니메이션학과 1학년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Q.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학생으로서 캠퍼스에 다양한 활동을 아직 누리지 못하였는데, 어떠신가요?

A. 대학교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즐기고, 추억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

Q.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태에 온라인 수업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은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도 잡지 않았기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여러 번 강의 교안을 뒤적거렸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강의가 예상보다 좋은 점도 발견되는 것 같고, 반면에 단점도 발견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신가요?

A.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니 수업 듣는 중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바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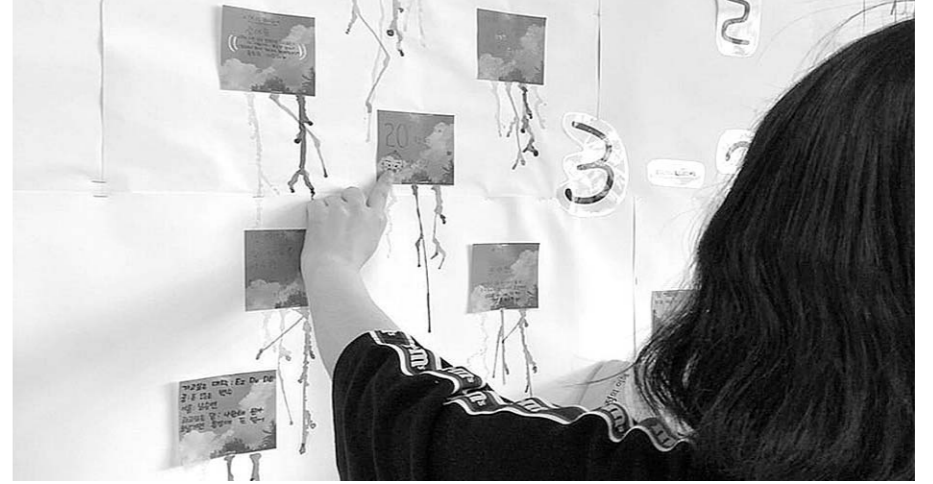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없는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이랑, 현장 실습이 중요시되는 과목들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것에 한계점을 느끼게 되고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Q. 온라인 강의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고쳐졌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A.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출석체크와 과제 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제출하였는지, 교수님이 확인하였는지, 나 혼자 다른 주제로 빠진 건 아닌지 때면 마음 졸이며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불편한 점은 대면 강의였다면 즉석에서 친구들과 서로 모르는 것을 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20학번 김유정 학생



▶고등학교 시절 실시하였던 실습

고 답하거나 교수님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시스템상의 오류로 제출 기한이 바뀌지 않았는지 등의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불편합니다.

신경 쓴다고 하지만, 이따금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면 제 실수로 인해 과제는 하였더라도 결석, 지각 제출의 횟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끔 서버가 불안정해서 접속할 수 없게 되면 마감 기한이 임박해 질수록 제 마음도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정이 되지 않아 곤란하고 난처하였습니다.

Q. 그렇다면 온라인 강의, 이걸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A. 교수님의 녹화 강의를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교수님의 강의 중 필기하느라 말씀을 놓쳐 중요한 부분을 듣지 못할 수 있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이러한 경우에 다시 돌려보면

되니, 복습에도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통학하는 시간의 이동 거리가 단축되어 시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Q. 코로나 종식 후에 대면 강의를 통해 만나지 못한 교수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점이 제일 기대되는가요?

A. 대면 강의를 시작하게 된다면 교수님을 실제로 보고 대면 강의를 하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등, 그동안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실습과목들, 대학생이 되었다는 학교생활, 만날 수 없었던 선배, 동기와의 만남 등. 딱히 한정할 수 없이 모든 여러 가지가 다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서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얻어 노력한 후에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기대됩니다.

Q. 아직 대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여 아쉬움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개강하고 학교에 방문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가요?

A. 동서대학교가 특히 다른 학교와 달리 경사가 많이 쳐 있다고 들었어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른 학교 캠퍼스를 걸어 다녀보고 싶어집니다.

Q. 혹은 기대되는 수업이 있으신가요?

A. 고등학교를 떠나 대학교에 왔으니 대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색다른 강의 실, 교수님 등등 새로운 방식의 모든 수업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Q.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나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무서히 마칠 수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의 생각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지난 대면 강의를 들었던 제 모습을 다시 추억하며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여울 기자  
hanyeowon0329@gmail.com

##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요셉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진 출처 - 위키백과

고난은 약이 아니라 선이다

구약성서 《창세기》(37장~)에 나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이다. 이집트에 팔려가 총리대신이 되었으며 이집트 주변의 흉년과 기근을 예지하고 대책을 미리부터 세웠다. 이상적 덕목을 갖춘 명재상이다.

창세기 30장에는 요셉(Joseph)이라는 이름의 출처가 나온다. 아이를 못 낳던 라헬이 요셉을 얻자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요셉이

라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아마도 '뜻이 없애다'의 히브리어 동사 아삽(asap)과 '더하다'의 동사 야사(yasap)이란 동사에서 요셉이란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족장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요셉(Joseph)이라는 히브리어 청년은 용모가 준수하고, 성격이 야무져 아버지의 편애로 형제들의 마음을 받았다. 여덟 형제 중 요셉은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위해 자신

을 지명했다고 믿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가 부모와 형제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셉은 이 꿈이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형제들은 그 꿈이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 받는 아들로서 부당하게 누리던 특권을 더욱 드러내는 거로 생각했다. 우리가 옳다고 확신한다 해도 합당한 견해를 갖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 좋은 지도자는 시기보다는 협력을 끌어내려 애 쓴다. 요셉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형제들과 심한 불화를 겪었다. 그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던 그의 형제는 가나안에서 예금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던 대상(隊商)에게 요셉을 팔기로 결론 내렸다. 그러자 그 장사치들은 요셉을 예금 왕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 버렸다. (창 37 : 2-36)

파라오의 경호원인 보디발 밑에서 요셉이 맡은 일은 신임을 받은 노예로서 책임이었다. 이후 요셉의 전반적인 능력을 알아본 보디발은 그를 승진시켜 개인 비서로 삼는 한편,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그러다 얼마 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성(性)적인 관심을 보였다. 요셉은 그녀의 요구를 단호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거절했다. 그는 보디발이 그에게 보여 준 폭복은 신뢰를 상키기

면서 그녀가 피하는 관계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로 "큰 약"이라고 "하나님께 죄"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다. (창 39 : 1-20)

감옥에서 요셉은 감금되어 있던 바로의 신하 두 명을 만났는데 술 맡은 관운장과 떡 굽는 관원 장사였다. 여러 예금 문서에 의하면, 술 맡은 관운장은 술의 품질을 시험하고 퓌이 들었는지 검사를 뿐 아니라 정치권력자와 가까이 지내기도 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이 왕실 관리들을 위해 꿈을 풀어주었다. 이 중에서 요셉의 해몽대로 포도주 담당 시종장은 사면복권 되지만 그만 요셉의 존제를 잊어버린다. (창 39 : 20-40 : 23)

그런데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속에서 마른 곡식과 소들이 잘 여문 곡식과 싹튼 소들을 먹여버리는 모습을 보고 고반하였으나 이집트의 지혜 자들이 이를 풀지 못하자,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해내어 소개했다. 시종장의 소개로 파라오에게 앞으로 불린 요셉은 앞으로 7년간 흉년 다음 7년 이후에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꿈 풀이를 했고, 그 지혜에 감동한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다. 총리 요셉은 흉년 동안 모아둔 곡식으로 가뭄에서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닌 주위의 많은 나라를 구하였다. (창 41 : 1-45)

이 과정에서 형제는 총리가 된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요셉이 어려웠을 적었던 꿈 그대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굶신거리게 된다. 한편 가나안에서 식량을 사기 위해 내려온 아버지와 가족들을 불러, 가족을 키우면서 살 곳으로 거센 땅을 영해 주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아버지가 죽은 후 형제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지만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뒤였다. (창 41 : 46-50 : 21)

그는 110세를 일기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 그의 유언을 좇아 그 뼈를 가나안 세겜 땅으로 가져와 안장했다. 그가 보여 준 희생과 순종, 순결과 인내의 삶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한편, '요셉'이라는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혹은 두 지파를 함께 부를 때에도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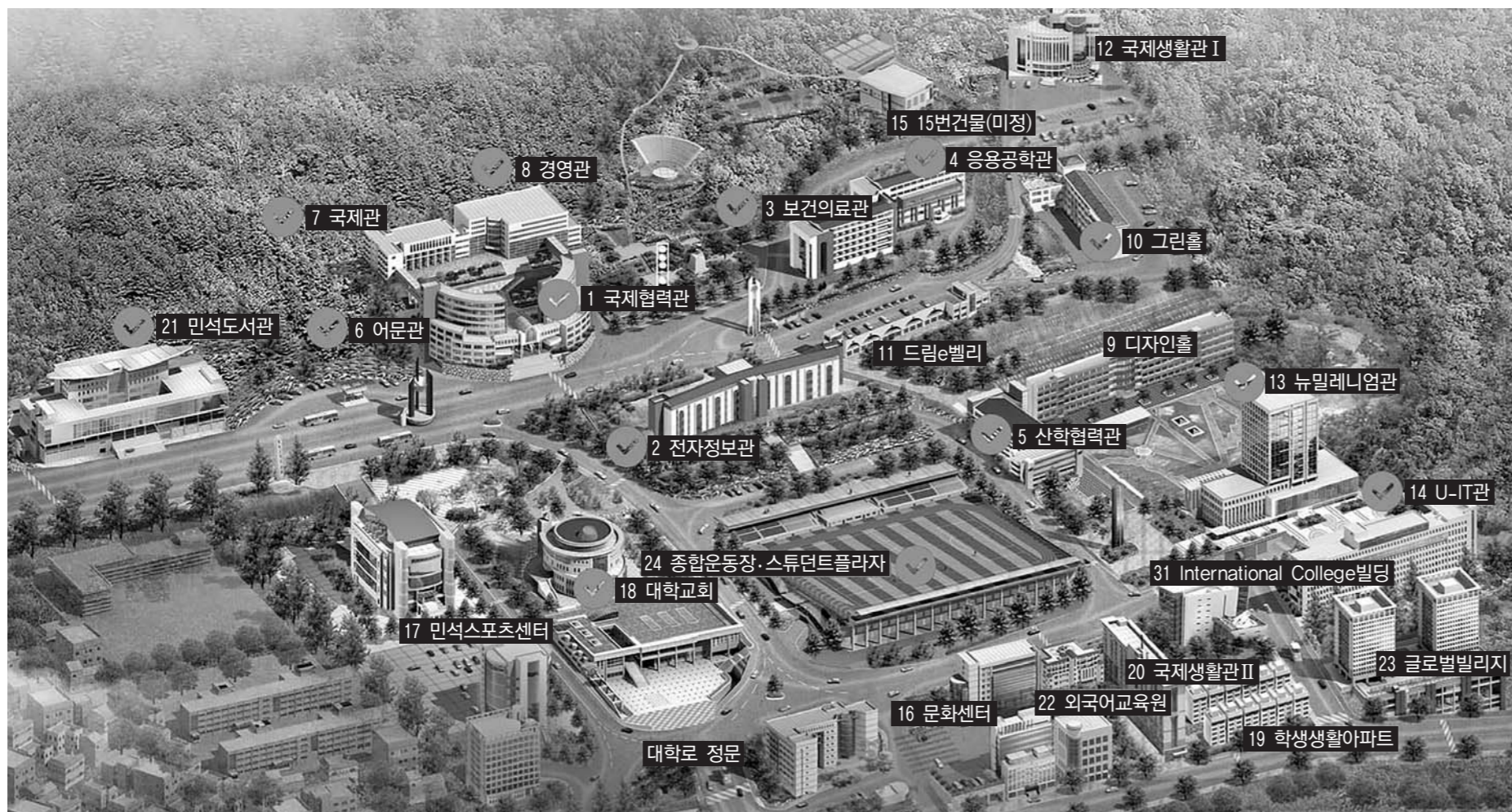
요셉의 역사적 기록은 구약성서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요셉 이야기와 내용이 비슷한 '두 형제 이야기'(The Tale of the Two Brothers) 설화와 기원전 17~19세기 무렵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기근을 피해 이주한 이민들의 지도자 이야기가 결합되어 구약성서에 요셉 이야기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요셉에 대해 구약역사학자 유진 매릴은 "요셉이 이집트에 온 것은 기원전 19세기 말엽 세 소스트리스 2세 치하 때일 것이다. 세 소스트리스는 많은 아시아 노예들이나 용병을

썼다."라는 견해를 통해 요셉이 실존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요셉은 가족의 배신, 신의를 받는 순간, 외면의 순간과 구원의 대행을 겪으며 자신을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도구'이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의 내렸다. 그는 사람이 가할 수 있는 해악에 대해 알았으며 가끔은 사람이 가장 악랄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만약 요셉이 악한 형제의 행태와 현재 자신이 처한 비참한 환경만을 생각했다면 애금에서 노예로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와 때를 때가 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가 아닌,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가 중요하다. 고난 앞에서 타인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여 이겨내지 않고, 용서와 자비를 통해 견뎌나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자신의 발자취를 통해 말해주고 있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국민일보, 천주교 마산교구 - 성경의 세계, 신현정 수습기자, hyyuk369@gmail.com



### 신문 어디서 볼 수 있을까?

N1	국제협력관	N10	그린홀
N2	전자정보관	N13	뉴밀레니엄관
N3	보건의료관	N14	U-IT관
N4	응용공학관	N18	대학교회
N6	어문관	N21	민석도서관, 열람실
N7	국제관	N24	스튜던트플라자
N8	경영관		* 대학신문은 각 위치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20 MG희망나눔 청년주거 장학사업  
장학사업 내집잡기 3기  
• 접수기간 : ~2020. 05. 14. (목)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 문학/글/시나리오



■ 2020 산울림 고전극장 서포터즈  
• 접수기간 : ~2020. 05. 15. (금)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2020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5. 15. (금)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영상/UCC/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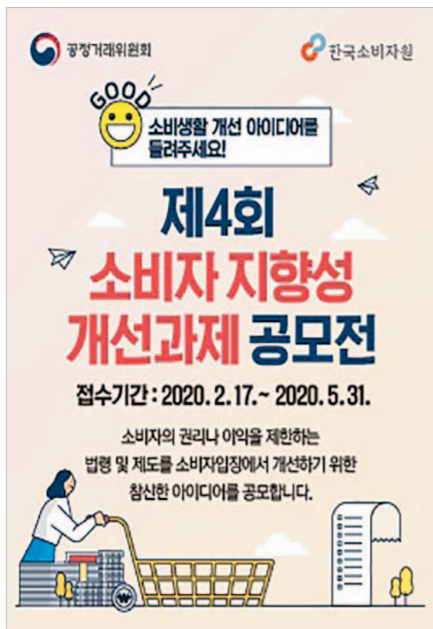
■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5. 20. (수)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광고/마케팅



■ 2020년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5. 22. (금)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광고/마케팅



■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 접수기간 : ~2020. 05. 28. (목)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제4회 소비자 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5. 31. (일)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조아라 제1회 연재작품 공모전  
INSTALL  
• 접수기간 : ~2020. 06. 04. (목)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문학/글/시나리오



■ 2020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6. 05. (금)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 2020년 5기 연안 서포터즈  
• 접수기간 : ~2020. 06. 07. (일)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대외활동/서포터즈



■ 2020 함께 만드는 여성 친화 달서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6. 08. (월)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2020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6. 12. (금)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 잠깐! 상식퀴즈

### 현재 상황

5월초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어느새 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개개인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신종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유의사항과 함께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까지 모두 힘내도록 노력하도록 하자!

### 정보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로 감염된다는 점이다. 특히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는 아주 위험하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특히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시에도 기침이 나온다면 꼭 팔이나 옷을 이용하여 입을 막은 상태에서 기침하도록 해야 한다. 오염된 물건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눈과 코 그리고 입을 만지는 것 또한 감염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무언가를 만지게 된다면 최대한 팔꿈치나 옷으로 가린 다음 만져야 하며 만약 손을 사용하였다면 손을 씻기 전까지 얼굴을 만지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Q&A

Q.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곳에도 랜չ을까?

#### Hint.

확진자가 거친 곳은 보건소에서 철저한 소독을 진행한다.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2859-0974로 연락주세요.  
\* 5월 22일까지 퀴즈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5월 25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